

韓國政治文化의 特性과 變遷

金雲泰*

차

- | | |
|---------------------------------|-------------------------------|
| I. 序論 | IV. 日帝殖民統治下에 政治文化의 歪曲 |
| II.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要素 의 特質과 그 영향 | V.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質 (다음 號連載豫定) |
| III. 韓末開化期의 韓國政治文化 의 近代的 過程 | |

〈要　約〉

本論文은 韓國政治의 오랜 歷史의 脈絡 속에서 現在의 우리 政治·行政生活에 승계되어 남아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의 政治意識과 行動을 규제하고 있는 많은 政治文化의 유산들이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던 또는 부정적인 요소이건 간에 서로 뒤섞여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 韓國近代화의 始發인 開港前後까지의 傳統社會의 傳統文化 속에서 현재 우리의 政治文化에 기속되고 있는 傳統的要素의 特性과 傳統的 政治觀의 主題를 추리하고 아울러 開港後 韓末開化期의 政治文化의 近代化展開過程을 살펴보고ついで 日帝殖民統治時期에 있어서의 傳統政治文化의 歪曲實態와 그 病理的 遺產을 밝힐 후 解放후 現代韓國의 政治文化의 주요특징 등을 차례로 분석을 시도한다.

1. 序論에서 人類學的인 文化的 概念과 政治에 대한 文化論의 接近에 관하여 論하고, 2.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要素의 特質과 그 영향에서 共同體의 親和性과 人本主義傳統, 權威主義, 分派性, 宿命主義, 階級主義, 名分主義, 尊民族의 正義意識과 進步意識 및 民族의 主體意識 등을 論하고, 3. 韩國政治文化의 近代化過程에서는 實學思想에서 爽이른 近代政治思想이 韓末開化期의 外來의 近代思想과 分裂된 民族主義運動의 爭등 속에서 主體의 으로 再創造되고 全國의 으로 波及되어 간 過程을 論하고, 4. 日帝殖民統治時期의 政治文化의 歪曲에서는 民族性의 巴比와 民族分裂, 形式主義와 法規萬能主義, 權威主義의 特權意識과 態意的 便法主義, 抵抗性, 不信과 否定心理, 그리고 暴力主義 등에 관하여 論하였다. 끝으로 4. 現代韓國의 政治文化의 特質에 관하여는 紙面關係로 다음 機會에 發表하도록 하겠다.

* 仁大 名譽教授
朝國大 招聘教授

I. 序論

우리 일상생활에서 文化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며 複合的인 要因들로 구성되나 그 나름대로 통일적인 내용을 가진 概念이다. 人間은 '社會的 動作'로서 한 社會의 성원으로 他人과 접촉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서나 政治體가 國際關係에서 다른 나라와 접촉하면서 對外關係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政治生活樣式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 生活ability를 터득하는 가운데 一定한 政治文化를 형성한다. 이러한 政治文化는 안으로는 자기 사회와 나라를 지속시키고 운영하는 觀念, 규법, 기준을 정하는 共同基盤을 형성하며 밖으로는 外來文化와 접촉할 때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당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적 요인과 통일체적 내용을 지닌 政治文化는 다음 세 가지 次元(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 政治文化는 具象化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傳統文化라 할 때 흔히 이러한 과거로부터 傳承된 具象化된 文物 또는 特質的事物이 일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政治規範과 物質文化의 중간적 위치에서 物質이나 도구를 所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方法과 밀접히 관련된 소위 技術的 規範에 해당한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포함된다. 이러한 傳統文物은 생활변화와 政治社會變化에 따라 계승, 유지, 소멸, 변형되는 과정을 비교적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둘째, 政治文化는 行動方式(또는 行態)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던 전통적 방식은 수정하든 수정하지 않든 담습하게 되며 특히 일상정치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형, 담습, 혹은 포기하게 된다.

세번째의 정치문화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각종의 政治의 觀念形態로서 여기에는 첫째, 政治的 觀念 예컨대 政治學의 眞理, 信念, 神話 및 俗談 등이 있고, 둘째, 政治規範 예컨대 憲法, 政治的 法律, 命令, 禮節, 因習 등을 비롯하여, 셋째, 政治的 이데올로기 즉 政治觀念과 規範文化의 中間位置에서 政治規範에 의하여 지지되는 觀念 등이 포함된다.

○ 상과 같은 政治文化의 세 가지 측면 즉 文物, 行動, 觀念은 서로 얹혀서 상호보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 하나의 복합체로 기능한다고 하겠다. 文化的 각 차원은 그 傳承過程에서 새로운 요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축적되면

서 다음 시대로 선택적으로 전승된다. 그리하여 다음 시대와 사회는 그 이전의 문화를 유산(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선택적으로 이어받는다. 따라서 과거와는 연속성을 부분적으로 가지면서도 과거의 전통문화와는 상이한 것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래된 문화는 무조건 전승되기 보다는 오히려 선택적으로 再創造·여과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적 과정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文化的適合性, 正體性 및 統合性의 문제라 할 수 있다.¹⁾ 즉 변화하는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一貫性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적합성이라 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가 外國의 文化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운동부칙을 가지는 것을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文化要素들간에 균형을 갖애 하고 性別, 地域, 世代, 階層들간에 文化的 통합을 이루는 것이 곧 統合性의 문제라 하겠다. 한 시대의 文化에서 다음 시대의 文化로 이양하는데 있어서 위의 위기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時代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로 한 見地에서 文化的 屬性은 時代와 空間에 따라 항상 변하고 그 내용이 축적된다. 集團의 구성원 사이에 서로 공유하는 경험, 기대가치, 언어 및 상징의 산물로서 학습되고 전승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는 하나의 體系를 이루며 全體와 部分 및 部分과 部分간의 유기적인 패턴과 동태적인 관계를 갖는다. 科學技術의 發展, 外國의 植民的 支配, 戰爭이나 公항, 產業化와 都市化 등은 歷史的으로 이러한 體系에 變化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變化는 때로는 文化體系의 適合性이나 正體性 또는 統合性의 命脈을 그 패도로부터 이탈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文化는 대체로 그 體系內部에서 균형상태를 회복하고 안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 통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文化는 다양한 구성단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文化的 구성단위로는 작게는 가정이나 지역과 종족 집단에서 크게는 계층과 계급, 민족과 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를 部分文化 또는 特殊文化들은 각각 나름대로 고유한 특색과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더 높은 수준에서는 그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普遍文化의 특성으로 인하여 韓國文化, 東洋文化 등과 같은 하나의 全體 文化體系를 형성하는 것이다.

人類學者들은 하나의 文化에서 가장 기초적인 單位에 해당하는 요소를 文化的 특질(cultural trait)이라고 명명하였다.²⁾ 이는 한 時代, 한 空間에 있어 文化

1) 金一鐵, “傳統文化와 社會變化”, 「高永復華甲紀念論叢(Ⅱ)」, 1988, p. 422.

김희섭 編,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나남, 1987, p. 227.

2) 安情市, “韓國政治文化의 特성과 變化”, 「韓國政治研究」(서울: 大韓國政治研究所) 1987, pp. 304-305.

韓相福·李文雄·金光億, 「文化人類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2, pp. 64-70.

體系의 核心이 되는 基本的 變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文化體系의 基本的인 特性을 기술하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은 제공해 주고 있다. 韓國政治文化를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文化에 관한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은 概念理解와 『1식방법 및 비교접근에 유의하면서 각 時代의 政治文化의 特質과 그 歷史的 脈絡을 추리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論文의 主題인 韓國政治文化의 特性과 變遷을 논함에 있어 우선 朝鮮朝開港까지의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 要素의 特性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다음 韓國近代화의 始發인 開港以後 韓末開化期의 韓國政治文化의 歷史的 源源과 近代化 過程을 밝히고 나아가서 日帝殖民時代의 歪曲된 政治文化的 遺產에 관하여 분석하고 그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韓國政治文化의 歷史的 脈絡을 背景으로 展開된 解放이후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性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韓國政治文化의 傳統的要素의 特質과 그 영향

우리는 韓國政治의 歷史的 脈絡속에서 현재에 남아 의식 무의식 중에 우리의 政治意識과 行動樣式을 규제하고 있는 많은 政治文化의 유산들이 그것이 政治發展의 視角에서 긍정적인 요소이건 또는 부정적인 요소이건 간에 서로 뒤섞여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계대의 歷史와 傳統文化속에서 현재 우리가 지향할 政治發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政治文化의 特性과 政治觀의 主題에 관하여 일찍이 다음과 같이 주리를 시도한 바 있다.³⁾

1) 民族的인 ‘和’의 原理와 人本主義傳統(弘益人間, 蘇塗精神, 고인돌文化, 한글思想, 國是論), (2) 倫理的 權威主義의 傳統, (3) 民族的 主體意識의 傳統, (4) 韓民族의 正義精神과 進步意識의 傳統.

그리나라에서 韓國政治文化의 研究는 1960年代 初부터 여러 國內外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李知勲(觀兩)教授는 1982年 韓國政治學會報 第16輯에서 22人의 國內外學者들의 研究狀態를 소개한 바 있다.⁴⁾ 물론 이 밖에도 近來에 이 分野의 研究가 계속되어 여러 學者들의 論文이 발표되고 있다. 이들 論文중에

:) 金雲泰, “韓國政治의 傳統文化的脈絡”, 金雲泰外 共著, 「韓國政治論」第二全訂版 (第二章 第2節), 博英社, 1989, pp. 195~214 (本 論文은 1976年 刊行初版에서 崔昌上教授와 共同執筆한 論文內容을 보강한 것임).

4) 金知勲, “韓國政治文化의 基本要因”, 「韓國政治學會報」第16輯, 1982, pp. 97~120.

서 특히 韓國의 傳統的 政治文化의 特性에 관하여 論及한 것으로는 다음 論文들이 주목된다. 發表年代順으로 살펴보면 韓太壽教授는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에 關한 考察」에서 「韓國社會를支配하는 傳統的 生活樣式에는 「샤마니즘」의 民間信仰이 中樞的 役割을 하고 있고 이것이 李朝 5百年을 通하여 政治的 指導理念이 仁 儒教와 連結하여 神權的政治意識을 助長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샤마니즘」의 社會的 役割을 分析함으로 이것과의 關聯에서 大衆의 政治意識을 晴明하는 것이 實相을 파악하는 捷徑이 된다」고 하여 「샤마니즘」(shamanism)의 神秘主義와 神權的 統治意識을 중심으로 分析한 바 있다.⁵⁾

崔圭圭教授는 「韓民族의 傳統과 韓國의 政治文化의 特色」으로 (1) 民族의 '和'의 原理로서 弘益人間, 蘇塗精神, 고인돌文化, 敬愛政治 등의 傳統을 들고 (2) 根本主義과 大同主義傳統으로 民族의 清白性과 共和精神을 (3) 民族의 主體性에 關한 傳統的政治意識으로 自主의 축면과 進步의 축면을 들고 아울러 (4) 歷史意識의 本質을 自主意識과 進步意識의 調和에서 찾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와 같은 傳統의 政治文化를 기초로 발연되는 韓民族의 傳統的政治觀인 化家爲國의 國家觀과 集團統合志向의 社會觀 그리고 自我觀과 對外國人觀 등을 古典文獻에 준거하여 특징지우고 있다.⁶⁾

다른 韓培浩教授는 朝鮮朝 開化期以後 一世紀期間의 세개의 政體를 구분하여 세계의 政治文化의 理念型을 비교고찰하는 가운데 韓末開化期의 朝鮮朝政體의 傳統의 政治文化의 理念型을 「天命德治」로 규정하고 그 특징으로 (1) 王朝의 正統性, 內容을 이루는 天命과 人心, (2) 儒教倫理를 規範으로 삼는 基本政策의 추구, (3) 政治過程의 儒教文化的 定向 등을 要約하였다.⁷⁾ 다음 李知勲教授는 1961年부터 1981年에 이르는 20餘年間에 걸쳐 22人の 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28個의 研究主題를 중심으로 여기서 提起된 韓國政治文化의 39個 要因들을 8個의 中樞的 政治文化要因으로 통합유도한 바 있으며 그 7個의 基本要因으로 (1) 民族的 主體性 (2) 權威主義 (3) 共同體性 (4) 分派性 (5) 疎外性 (6) 抵抗性 (7) 市民性 등을 提示하고 있다.⁸⁾

韓國의 傳統的 政治文化와 그 特質에 관하여 國內外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包括的 研究에 유념하여 여기서 傳統的 要素로써 다음 10個의 文化的 特質을 그

5) 韓太壽,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에 關한 考察”, 「芝陽申基碩博士華甲紀念論文集」, 968, p.491.

6) 金秉泰 外 共著, 「韓國政治論」, 初版, 博英社, 1976, pp.136-182.

7) 韓培浩, “開化期以後의 政體와 政治文化-세계의 理念型”, 「韓國政治學會報」第 0期, 1976, pp. 23-39.

8) 李知勲, 『한의 論文』, pp. 107-120.

重要度를 較量한 比重에 따라 다음 順序로 각 主題別의 特質을 밝히고 그 영향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즉 (1) 共同體的 親和性과 人本主義傳統 (2) 權威主義 (3) 分派性(派閥主義) (4) 宿命主義(運命主義) (5) 階級主義와 階序의 人間關係 (6) 名分主義와 形式主義 (7) 韓民族의 正義意識과 進步意識(潔白性과 革新主義) (8) 民族的主體意識의 傳統 등 特性的 主題를 研究對象으로 삼고자 한다.

1. 共同體的 親和性과 人本主義傳統

韓民族은 單一民族으로서 歷史的으로 오랜 家族主義의 共同體生活을 영위하여 그는 가운데 成員相互間의 親和關係와 人本主義의 政治文化의 傳統을 이어왔다. 이러한 民族共同體의 親和의 原理와 世俗의 人間을 根本으로 삼고 존중하는 人本主義傳統은 檀君神話에 나오는 ‘弘益人間’의 정신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君과 民은 根本이 하나다’라는 이른바 ‘한얼’思想으로서⁹⁾ 또는 正義(純潔)를 우한 統合力을 강조하는 大同主義로서 표현되기도 하였다. 특히 人本主義 또는 民本主義의 傳統은 弘益人間의 건국정신을 비롯하여 韓國上古의 고유사상인 天地人三才中 하늘도 소중하고 땅도 소중하지만 특히 人間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人本思想이나 傳統의 民本爲民思想 그리고 天人合一思想¹⁰⁾이나 또는 栗谷의 懸是論¹¹⁾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人本主義 또는 民本主義傳統은 우리나라 建國과 上古以來로 계승되어 온 民族固有의 政治文化 또는 政治思想이며 이는 유럽의 神本主義의 絶對主義 政治思想과 분명히 대조되는 세속적 人道主義의 경향을 내포한 思想이다. 近世 朝鮮朝에서는 특히 爲民 또는 養民(牧民)을 국가의 근본임무로 정치의 근본이념으로 생각하고 君主는 民心을 읽어 百姓을 위하여 통치하는 聖者로서 民과 일

9) 이思想은 靜庵趙光祖의 다음 文獻에서 강조되었고 朝鮮朝土林政治의 本質을 설명해주는 至治主義의 중요한 정신이었다. “君與民本乎一而…聖人 以天地之大 兆民之衆為一己一”(國王과 人民는 본래가 하나이며 天地의 크기는 萬民의 다수와 하나가 될 뿐이다) ([靜庵集雜著]).

10) 世宗實錄 第三十二卷 世宗 8年 5月 丁酉條十五 “嗚呼天之與人本一氣矣. 民惟邦本食是民天…”(으호. 하늘은 사람은 근본이 하나의 元氣이다. 民는 바로 나라의 근본이며 食은 바로 民에게 하늘같이 소중한 것이다)

11) 栗谷全書卷 7 辭大司諫兼陳洗滌東西疏.

여기서 栗谷(1536~1584)은 「人心이 모두 그리하다고 동의하는 내용이 곧 公論이다. 바로 이 같은 公論이 소재하는 곳에서 國是은 이루어진다. 그리기에 國是은 온 나라 안사람들이 뼈합이 없이도 다같이 움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栗谷李珥는 “公論은 國人們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을 막지 않을때 輿情(輿論)을 짜드는 것이다. 國是를 定하는 것이다”(栗谷全書卷4) “그렇기 때문에 公論은 國家の 元氣로서 公論이 朝廷에서 있으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公論이 閭巷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우며 만약 上下에 함께 公論이 없으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주장하였다”(栗谷全書, 卷7).

치하로 萬民의 뜻(民心)은 天(天命 또는 天心)과도 일치하다는 性理學思想에 기지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 현실 정치에도 반영되어 온 사상인 것이다.¹²⁾

性理學에서 天命과 人心이란 君主制統治의 正統性名分을 부여하는 概念이 있으며 그 論理는 人心의 추향(趨向)을 보고 天命을 해아릴 수 있고 天命이 定해지면 人心은 이에 따르게 되어 있음으로 君主는 民心과 天命이 일치되도록 德治를 펴풀어 王朝의 正統性을 보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天命이라는 超自然的이고 神秘的인 天理로서 이 하늘의 運은 전혀 人間의 意思와 無關한 必然의 宿命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人間의 意思에 따라 마음대로 左右되는 것도 아니었다. 하늘의 運과 人間의 모든 德性이 서로 合하고相通할 때 나라가 평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治者로서 君主가 지녀야 할 資質을 중시하였으며 그러한 倫理的 資質과 行動樣式은 王의 分身 또는 延長이라 할 官人們에게도 適用되어야만 하였다.

天命(天理)에 부합되는 倫理政治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自己를 修養하고 나서 사람을 다스리는 이른바 ‘修己而治人’에 의한 ‘德治’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治者로서 倫理的으로 自己完成을 지향하는 修德이 있어야만 비로소 백성을 다스리는 자격이 있고 政治·行政의 實效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性理學에서는 모든 官職者로써 갖추어야 할 德性과 資質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은 儒教·佛教 등 外來思想이 들어와서 妙合되어 土着化하기 전에 있었던 韓國上古思想의 原型으로 전기한 天地人三才中人間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人本思想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인의 오랜 禮俗으로 祭天儀式과 祖上崇拜의 觀念이 중국이나 日本보다도 더욱 강하게 남아있다. 물론 祭天儀式에서는 하늘을 숭배한 것을 알수 있지만 나와 하늘과의 관계를 말하면 祖上을 매개로 하여 나와 하늘이 연계되었다. 祖上의 분묘를 유풍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의 오랜 禮俗으로서 祖上과 하늘을崇拜하는 것은 根本뿌리를 소중하게 하는 까닭이었다. 그 아래로는 子孫을 지극히 愛重하게 여겨 자손만대의 영광을 확보하

12) 靜庵趙光祖(1482~1519)는 다음과 같이 民本主義를 강조하였다.

「天과人은 본래 하나이기에 天은 人에게 그 理가 없을 수 없고 君과 民도 본래 하나이기에 君도 民에게 그 道가 없을 수 없다. …무릇 君臣이란 것은 為民 때문에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上下가 이 뜻을 알아차려 밤낮으로 百姓들로써 자기 마음을 삼는 때 비로소 政治의 道는 이루어지게 된다…」(『靜庵先生文集』卷3侍讀官時啓1) 趙光祖의 이와 같은 政治의 道(理念)를 우리는 흔히 ‘至治主義’라 부르며 이는 일종의 賢人政治의 性格을 갖는 것으로 이 이념은 뒷날 栗谷의 國是의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고 나아가서 宋時烈의 世道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나는 생각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조상과 자손을 敬愛하는 從的觀念은 祖國과 氏族을 지키려는 역사의식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敬愛精神은 敬天・愛人하는 精神으로 그것을 온 청하가 서로 敬上・愛下로써 조화를 이루는 親和精神과 愛民精神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며 한마디로 天과 君은 人과 民을 사랑하고 여기에 대하여 人과 民은 天과 君을 공경하는 相關機能의 親和力を 그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敬愛政治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親和的 性格은 君과 父는 어디까지나 崇과 父로서 그리고 臣과 子는 어디까지나 臣과 子로서 그 직분과 기능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機能的 親和의 紐帶를 그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敬愛政治와 관련하여 高麗 成宗朝(1982~97) 崔承老는 그의 上書文인 時務二十八條 第14條에서 「聖人이 天人을 감동시키는 所以는 그 純一한 德과 無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聖上이 마음을 겸양하게 가지고 항상 敬愛함이 있어 臣下를 禮遇하면 누가 心力を 다하여 나아가 협책을 전의하고 물러나 보좌하기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임금은 臣下를 禮로써 대하고 臣下는 임금을 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¹³⁾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貴族出身 儒學者로서 敬愛精神을 바탕으로하는 德治政治의 本質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共同體의 親和精神과 人本主義傳統은 建國神話에서 檀君의 統治理念으로 제시된 弘益人間精神과 古代社會 우리 祖上들이 전조한 巨大한 支石墓文化(고인돌文化), 그리고 古代國家의 集團의 儀禮로써 蘇塗 즉 祭天을 통한 敬天思想과 歌舞和樂을 통한 愛民(人)精神, 그리고 선행과 결백의 맹서를 통한 純潔意志 등의 발달¹⁴⁾라고 할 수 있는 蘇塗行事, 新羅의 和白制와 花郎道¹⁴⁾, 高麗時代의 八關會 및 燃燈會¹⁵⁾ 등의 集團의인 大衆禮式, 朝鮮朝의 鄉約, 두레, 품앗이 등의 風習을

1.) 金哲坡,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에 대하여”『趙明基記念佛教史學論叢』1965, p. 253.

1.) ① 新羅和白制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무리와 더불어 상의하였으니 이를하여 和白이라 하였고,一人만 의견을 달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事必與衆議號和白一人異則罷) (『唐書』新羅傳)

② 新羅의 花郎五戒는 바로 孝悌忠信 같은 철저한 國家意識을 기반으로 하여 傳統의in 親和性이 더욱 강한 共同社會倫理로 나타난 것이었다(孝悌忠信理國之大要…)(『三國史記』卷3).

15) 그것은 王建太祖가 남긴 訓要十條 가운데의 第 6條의 내용에 잘 보이고 있다. 즉 “燃燈은 써 부처를 섬기기 위한 것이요, 八關은 써 天靈과 五岳・名山・大川・龍神을 섬기는 所以이다.”

여기에 대하여 明宗 때 李仁老가 『破閑集』에는 다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다.

“鶴林의 俚俗에…花郎이라는 것이 있어 國人이 모두 떠 말들었고 그 무리 千數人에 이르렀다. …우리 太祖가 建國함에 古國의 遺風을 합부로 그칠 수 없었다 하여 冬月에 八關燈會를 베풀고 良家の子弟들을 뽑아 출후미 즐기게 하였다.”

根幹으로한 部落共同體意識, 財產共有와 相互協同을 目적으로하는 각종 契의 傳統(大洞契, 里中契, 軍布契 등), 村落共同體 基本單位로서 “마을” 또는 洞里觀念, 家門 또는 血緣의 紐帶로 榮辱을 같이하는 連坐的 集團責任制 洞里笞刑, 追放 등의 集團的 制裁 그리고 血緣, 地緣 學緣 등의 一次的 紐帶가 강조되어온 傳統 등에서 共同體性과 人本性이 발휘되고 있음을 널리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이상 共同體的 親和性과 人本主義傳統의 要素로서 近代時期를 거쳐 現代社會에 까지 그 命脈이 지속되어온 屬性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特性이 주목된다. 建國說話에서 나타난 弘益人間의 理念, 天, 君, 民一致의 한열思想과 天命德治를 根幹으로한 人本, 民本主義理念, 敬愛政治精神, 大同主義理念, 特定한 因緣 즉 血緣, 地緣, 學緣 및 깊은 同僚意識 등 주로 第一次의 紐帶로 결합된 小集團에 대한 忠誠과 翼屬意識 및 協同的性向 등이 주목된다.

2. 權威主義

韓國人이 傳統的으로 權威主義의 性向을 갖게 한 주요한 歷史的 根據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古代以來로 精靈思想을 기초로 한 強力한 샤마니즘의 神秘主義의 俗固有한 傳統文化로 계승되어 왔고 神權的 統治意識과 敬天敬愛思想 및 家父長的 家族主義傳統이 뿌리깊이 社會에 침투되어온데다 近世國家의 強力한 中央集權的 統治와 官人支配體制 朱子學의 天命德治思想(또는 王道, 世道政治思想과 人倫의 大綱으로 三綱五倫의 上下順從秩序를 禮規로合理화시키고 있는 儒教政治文化, 班常의 身分의 差別과 精密한 品階制에 따른 位階的인 社會的 構造와 階級意識 支配階層의 過熱된 官僚的 權威志向과 民의 服從志向의 傳統 그리고 名分論을 토대로한 華夷의 世界觀과 事大主義 正邪를 가리는 闢闔論과 禮論의 形式主義 나아가서는 베타인습지향적 尚古主義思想 등이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 權威主義의 性向을 形成하게 하여온 歷史的 根據라고 하겠다.

이러한 傳統的 權威主義要素로써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政治文化的 特질을 形成하고 있는 屬性으로 주목되는 것은 들어보면 權力集中主義, 官僚主義, 權力至上觀念, 官의 支配와 一般人의 權威에 대한 服從志向, 少數權力層의 엘리트意識, 個人的 社會的 地位(身分, 年齡, 先後輩, 金力其他 각종 地位)를 중심으로 上·下의 階層的 人間關係를 順理로 수용하는 性向 事大主義性向 등이 주목된다.

3. 分派性向과 派閥主義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 政治文化的 特性으로써 分派的 性向과 派閥主義要素가

16) 金知勳, 앞의 논문, p.112 참고.

구각되고 深化되기 시작한 것은 朝鮮朝社會부터라고 할 수 있다. 朝鮮朝 官人支配體制下에서는 官職을 「벼슬」 또는 「감투」로 생각하고 그것을 차지함으로써 고든 經濟的 富와 政治的 權勢와 社會的 名譽 등 特權이 따르기 때문에 支配階層인 兩班 엘리트간에 한정된 官職을 둘러싸고 경합이 심하였으며 여기서 派閥間의 對立과 紛爭이 격화된 것이다. 또한 王位繼承問題에 對한 意見對立이나 這是 隨意히 權力鬭爭의 對立에서 끊임없는 紛爭과 黨派間의 相剋이 야기되었다.

또한 朝鮮朝의 國教인 朱子學의 儒教思想이 排外的 分派性과 派閥的 對立을 강장한 면도 간과 할 수 없다. 즉 朱子學은 華夷의 世界觀을 토대로 正邪를 가지고 宗教的, 種族的, 學問的 異端을 배척하는 政治的 이데올로기성이 강하였다. 뿐만아니라 儒教儀禮나 名分論上의 形式主義의 儀式이나 命題를 대상으로 甲論乙駁하는 論爭을 일삼고 派閥集團의 對立과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그 문제가 과열되어 四色黨派의 弊習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朝鮮朝 社會構造의 基本單位를 이루는 共同體의 第一次의 紐帶로써 家門을 중심으로 한 血緣的 族閥主義와 排他的 出世主義 地緣을 土臺로 한 地方緣故의 集團利己主義, 또는 學緣을 根據로 한 學閥主義의 對立과 갈등 등으로 因한 分派와 派閥現象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 時代의 이러한 分派性의 屬性으로는 義理와 情을 중시하는 人情主義와 人物主義性向을 들어내고 있으며 따라서 情實에 의한 非制度化, 排他的性向, 集團間의 人物을 중심으로한 각종 派閥의 分裂과 對立 現象이 나타나며 아울러 小規模의 自生的 集團으로 一次 内지는 情的인 紐帶에서 分散的으로 派生된 集團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限定된 利益 또는 目標를 위한 一時의in協同도 있으나 成員間의 自己集團에 대한 歸屬主義性向이 강하기 때문에 對外의으로는 閉鎖的인 排他性과 競爭的 派閥性을 노정한다.¹⁷⁾

그리고 派閥主義는 個人的 정체를 獨립적인 個人主義의 個體로서 보다 그가 소속된 家門이나 集團에 順從하는 一員으로서 인식하도록하는 歸屬主義 또는 緣故主義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歸屬的 集團主義는 相互內包性(inclusion), 密着性, 信義 및 集團의 統合性을 토대로 協同性, 親和性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協同性이나 親和性이 기껏해야 어떤 私的인 枝葉의 目的實現을 위한 手段의 役割을 하는데 불과하고 결국 依存心, 排外主義, 分派主義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큰 것이다.

17) 金知勳, 앞의 논문, p. 114 참고.

4. 宿命主義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의 한 屬性으로 宿命主義 또는 運命主義는 傳統的인 샤마니즘의 神秘主義와 神權的 統治意識 그리고 韓民族의 地政學的 背景에서 周邊強國의 外侵으로 因한 被害意識 등에서 源源한다고 할 수 있다.

韓太壽教授는 「韓國社會를 支配하는 傳統的 生活樣式에는 「샤마니즘」의 民間信仰이 中樞的 役割을 하고 있고, 이것이 李朝 5百年을 通하여 政治的 指導理念이 된 儒教와 連結하여 神權的 統治意識을 助長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우리나라 傳統의 民間信仰인 「샤마니즘」(shamanism)은 數千年의 固有한 傳統을 가진 鬼神을 섭기는 思想으로서 外來宗教인 佛教, 儒教, 道教 등이 모두 大衆的으로는 이 「샤마니즘」에 依하여 理解되고 그러한 聯關性에서 信仰되어 왔다. 韓國에서는 人生에 災害疾病이 일어나는 原因이 鬼神에 있다고 믿는 信仰이 从古 날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에 대한 療法으로 巫覡은 무축에 의하여, 盲者는 讀經으로 기도해서 鬼神을 駁퇴시키는 神事が 盛行하여 왔다. 韓國에서는 三國時代부터 高麗時代를 거쳐 佛教가 盛行하였으나 佛教는 「샤마니즘」의 영향을 받는 呪術的이 되고 또 密敎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道教까지 겹쳐서 오랫동안 神秘的인 思考方式이 韓國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朝鮮朝의 儒敎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周易思想도 韓國의 「샤마니즘」思想과의 連關에서 儒敎와는 별도로 民間信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周易을 背景으로 流行된 陰陽五行의 理致는 단순한 迷信으로서 神秘主義의 運命觀을 年代하게 부식시켰다. 그 一種인 風水思想은 王家의 모든 行事를 비롯하여 一般民衆도 관혼상제나 墓地選定에 이르기까지 吉凶을 가리고 福禍를 免하는 行事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이 風水說은 朝鮮에 와서 鄭鑑思想을 넣고 大衆社會의 底面에 뿐만 아니라 神秘主義와 政治的 宿命觀을 불식하였다.

이와 같은 國民의 神秘主義는 각종 新宗教를 파생시키는 좋은 기반이 되었고 그중에는 東學과 같이 儒敎의 倫理를 살리고 佛教의 覺性을 본따고 道教의 養性을 取り 받아 生命力이 있고 民衆이 親할 수 있는 宗敎가 되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샤마니즘의 根性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民心을 현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朝鮮朝儒敎의 天命思想은 철저한 民本主義思想을 근거로 하였음에도 불

18) 韓太壽,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에 關한 考察”, 『芝陽申基碩博士華甲紀念 學術論文集』, 1968, p. 491.

구하고 傳統的인 「샤마니즘」의 神秘主義와 結附되어 歪曲되게 大衆에게 용납되었다. 여기서 大衆은 君主를 神格化시키고 이에 絶對服從하는 態度를 갖게 하였으며 一種의 神權的 統治意識을 形成하게 되었던 것이다.

儒教에서 말하는 天에 對한 信仰이 그 起源에 있어서 一種의 一神教임에 틀림없고 人民이 天의 存在를 믿어서 尊敬하는 理致이나 天의 禮拜가 人民에게 禁止되고 天子에게만 限하게 되었기에 天은 人民의 神으로서 神이 偶像化하지 않았으나 그 代身 大衆의인 宗教로 擴大되지도 못했다.

朝鮮朝儒教에서는 天과 人民과 君主는 三位一體로 보는 소위 한일思想이 강조되고 여기서 君主는 天의 代表者로서 天의 意志에 의하여 제한되고 他方에서 人民에 對한 義務로서 制限된다. 그는 天의 法則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고 人民의 意志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雙方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다. 韓國에서는 이와 같은 天의 宗教的 意義가 오히려 深化되어 君主의 神權的 權威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天命思想은 一般民衆에게 運命思想과 宿命主義를 보여하는데 좋은 口實을 주었다. 그리하여 四柱八字, 觀相, 占卜, 地官을 主로 하는 陰陽道가 儒教와는 별도로 성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샤마니즘의 神秘主義가 大衆의 思考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容易하게 등장할 수 있는 티전이 마련되었다.

한편 韓半島의 地政學의 으로 特殊한 立地與件下에서 弱少民族인 韓民族이 歷史上 周邊强大異民族들에 의하여 빈번한 外侵을 경험해 왔으며 이 不可抗力의 外患으로 被害를 입어 오는 가운데 國民들 사이에 은연중에 宿命의인 世界觀과 國家觀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즉 韓半島의 公간적인 戰略의 위치가 北方은 中國 및 러시아에 인접되어 있고 太平洋을 건너 美國과 그리고 南端은 日本과 접하고 있는 關係로 이를 주변열강들의 國제적 권력관계 여하에 따라 國運이 左右되고 政治의 安危가 우리의 能力を 초월한 外在的 變數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國民意識속에 事大主義의 性向과 運命意識이 배양되고 그것이 샤마니즘의 神秘主義나 神權의 統治意識과 相乘하여 宿命主義의 政治文化를 심화시켰다고 본다.

5. 階級主義

韓國의 傳統社會는 身分制의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國家의 官制도 精密한 階序制가 발달하여 社會生活이나 政府官僚制에 있어 上下의 身分의 差別意識 + 階序의 人間關係가 깊이 침투되어 階級主義는 古來로 하나의 강력한 政治

문화의 特質을 형성하고 있다.

身分制度로써 新羅時代에는 聖骨, 眞骨, 六頭品 등의 身分의 階級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官制에 背品制가 대체되었으며 高麗朝 貴族政治以來로 班當制가 발달하니 朝鮮朝 兩班政治社會에서는 兩班·吏胥·常人·賤人の 身分制¹⁹⁾가 임격히 준수되었으며 儒教國家인 朝鮮朝官制는 東西(文武)兩班이 각기 18品階級으로 분류된 精密한 階序制를 형성하였다. 특히 朝鮮朝의 階級主義傳統은 一種의 封建社會政治이내을보기로서의 朱子學儒教思想의 깊은 영향을 받아 國民의 社會生活과 政府의 官僚主義組織에 全般的으로 침투되어 後世에 계승되었다. 그러나 傳統社會의 階級主義는 權威에 대한 服從만을 강요하고 人間性을 무시하는 身分上의 계급적 차별만을 강조하는 不合理하고 否定的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6. 名分主義와 形式主義

朝鮮朝 朱子學의 屬性으로써 名分論은 傳統的政治文化의 한 특질로써 形式主義文化를 조장하였다. 朝鮮朝社會에서는 名分論을 토대로 한 華夷의 世界觀과 事大主義 그리고 正邪를 가리는 關闈論, 禮論의 形式主義 등이 文化的基底로써 가조되었다.

朝鮮王朝가 朱子學을 國教로 받아들여 儒教文化國家를 건립하고 朱子學의 儒教를 기반으로 新王朝의 秩序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朝鮮社會에서 파생적으로 名分主義와 形式主義의 意識形態가 더욱 깊이 씨를 뿐리게 된 것이다.

첫째로 朝鮮朝의 支配層에 속하는 사람들의 한 意識形態로써 國際關係를 상징하는 慕華思想과 事大秩序를 존중하였는 바 이는 본래 高麗中期 이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箕子東來說²⁰⁾을 기초로한 箕子崇拜思想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朝鮮朝初期의 華夷의 世界觀과 事大字小意識²¹⁾과 밀접히 관계를 가지고 토착화되었다. 일찌기 中國은 高麗를 근족중 가장 뛰어난 禮儀의 나라로 칭찬하고 그디어 ‘小中華’라고 찬사까지 보내게 되었다.²²⁾ 朝鮮朝에 들어와 事大字

19) 朝鮮朝朱子學은 華夷觀을 기반으로 關異論의 名分主義와 階級思想이 강조되었다. 即 宇宙萬物은 陰陽五行의 氣를 태어나는 것으로 그 태어난 氣의 純度에 따라서 人間·夷狄, 動物, 植物, 糸物 등 質과 次元을 달리하는 萬物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또 같은 人間에 있어서도 그 태어나는 氣의 純度에 따라 그들의 身分, 地位, 官貴貴賤을 달리하여 태어나는 것으로 여겼다. 이와같이 人間의 社會의인 身分, 地位를 고정시키고 그것을 天理에 부합되는 것으로 경당시하였던 것이다.

20) 朝國通鑑, 肅宗(高麗) 7年十日條 “我國教化禮義自箕子始...”
仁宗實錄 第七十二卷 世宗 18年 5月 丁丑條十二 「我大東自箕子設教之後世...」

21)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世篇」, 全訂版 p.53.

吳慶元, 「小華外交」, 京城朝鮮研究會, 大正 3年 p. 208.

22) 『秋左傳昭公三十年』, 「禮也者小事大矣字小之謂事大其時命字小恤其所無」

小는 禮教의 秩序가 통용되는 「天下」(國際社會) 안에서 明이라는 中原의 나라 라 朝鮮이라는 이웃 나라 사이에 上下序次의 名分에 의하여 규제되는 國際關係를 의미하며 어디까지나 法이나 힘이 아니고 名分과 義理에 의하여 규제되는 相互義務가 전제로 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朝鮮朝의 明에 대한 事大는 例으로부터 오는 字小라는 恩惠에 대한 義理의 표현이며 名分에 의하여 유지되는 禮의 秩序이었기에 上國인 明이 禮로써 字小를 다하지 않고 힘으로 지배를 강요하게 되었다면 朝鮮事大의 관계는 무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당시에 明으로 부터의 字小의 恩惠가 크면 클수록 事大의 意識은 더욱 강화될 있었던 것이다.²³⁾

둘째로 名分論은 儒教的 倫理秩序를 체계화한 禮論에서 시작되었다. 이 禮論은 모든 社會秩序와 行爲의 포괄적인 기준이며 따라서 禮論에 의하여 용인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은 모두 그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 또는 形式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名分論인 것이다. 朝鮮朝의 朱子學은 國際關係에서 華夷觀을 기반으로, 강력한 關闈論의인 名分主義를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三綱五倫의 綱常論의 理論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儒教의 正統精神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어떠한 形態의 思想이나 力勢에 대해서도 批判과 抵抗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朝鮮王朝의 國際的 關係와 國內的 統治基盤을 이루는 倫理秩序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政治的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個人的 道德性이나 家族倫理의 倫理性은 그 次元을 넘어서 社會와 歷史의 倫理性을 요구하는 儒教主義歷史觀과 大義名分의 義理論으로 擴大할때 王道가 구현되지만 儒教의 正統性이 결여된 實力を 행사하고 仁義를 가정한다면 羅道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7. 韓民族의 正義意識과 進步意識

韓民族의 歷史를 통하여 그 文化特質의 기본적 한 속성으로 潔白性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 特質은 우리 民族의 순결(純潔)에 대한 사랑과 이를 추구하려는 정신이기도 하지만 순결함으로 해서 그것이 活力素가 되어 韓民族이 歷史內으로 自立性과 進步的革新을 성취해 온 점이 주목된다. 이와같이 韓民族을 살려온 潔白性은 政治思想의으로는 곧 韓民族이 지켜온 正義精神에 해당하

여기서 事大는 小國이 強中에서 存立하기 위한 불가피한 形式 즉 自存의 窮形이라고 말하고 字小란 작고 연약한 者를 사라하고 애처롭게 여김을 의미한다.

23) 摘著, 前揭書, p.55.

며 아울러 建國이래 人本的 平等思想의 傳統으로 계승되어 近代化過程에서 정치발전의 추진력이 된 平等化理念에도 해당이 된다.

潔白性이나 正義精神이란 우리의 정치문화적 특징은 花郎精神, 소도사상, 朝鮮朝 上林의 선비精神 등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平等化의 전통과 이념은 '弘益人間'의 理念, 神人思想이나 敬天思想, 人本主義 한일 思想의 傳統과 近代化過程에서 實學(특히 北學派)思想, 開化思想 등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白衣를 숭상하던 白衣民族의 傳統은 곧 이같은 潔白性에 대한 전통적 상징이었던 것이다.

8. 民族的 主體意識의 傳統

韓民族의 主體意識은 문화적으로 볼 때 우월한 인접중국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민족고유의 문화와 언어의 독자성을 견지해 오면서 공동체유대를 유지해 온 역사의 면면한 흐름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으며 아울러 역사상 빈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民族的 統合성이 보전된 韓國의 歷史는 강한 民族的 主體意識의 발로이며 민족적 일체감과 自主意識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 같은 한민족의 주체의식은 한민족이 처한 歷史的 狀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그 첫째는 抵抗(敵對)意識이었고 다른 하나는 恩惠(共存)意識이었다. 전자는 물론 적대국이 민족이 지키려는 主體性과 自主를 기약하려는 부정적 상황에서 였고 後者는 우호국이 바로 民族이 지키려는 주체성과 자주를 승인하거나 지지해 주는 긍정적 상황에서 였다.

民族的 主體를 위협하는 침략과 수난의 역사가 특히 많았던 한민족에게 歷史的으로 그 主體意識의 존재형태는 대부분 저항적인 그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意識의抵抗의 형태는 어디까지나 民族의 그 對外的 측면에 관한 것일 뿐 민족의 그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언제나 이같은抵抗의 형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더없는 民族의 一體感과 親和力(統合力)이 또한 수반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대외적인 저항을 통하여 오히려 민족의 대내적인 통합력을 길러왔던 韓民族主體意識의 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한 民族의 主體意識이 은혜의식속에 안주하고 있을 경우보다도 오히려抵抗意識을 통하여 그 투쟁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의 훈적이 더욱 활발하게 발양될 수 있었던 民族史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漢四郡에 대한 수백년 저항뒤에서 高句麗와 같은 古代國家의 推進力

을 발견하였고 무수히 계속된 對異民族抗爭과 보다 직접적인 對唐抗爭을 통하여 삼국통일이란 민족통합력을 또한 발견하였다. 高麗時代에는 40년 對蒙抗爭 속에서 民族主體意識과 愛鄉心으로 동원되었던 三別抄나 자발적인 農奴軍의活力를 발견한다. 백여년 對元抵抗 뒤에서는 朝鮮朝라는 新興近世國家의 創建力を 발휘하였고 200餘年 對清抵抗 뒤에서는 近代的 自主民族으로서의 활력을 얻었으며 (獨立黨·獨立協會) 다시 수십년 대일항쟁 뒤에서는 새로운 근대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더없는 民族主義的活力을 얻었던 것이다(3·1 民族運動).

이 같이 民族的矛盾을 抵抗·克服함으로써 얻어온 民族的自主의活力이기에 그같은 韓民族의 主體意識에는 언제나 지나온 역사를 상기하여 민족적 주체에 대한 확신으로 再創造하는 역사의식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王亂義兵의抵抗에서 나온 역사의식과 對清斥邪나 北伐思想의 抗拒에서 나온 역사의식 등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같은 역사의식은 밀려오는 서양의 팽창세력 앞에서 저항하던 1860년대 衛正斥邪思想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고 다시 1900년대 일제의 침략앞에 직접 항거하던 義兵運動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상의 줄기를 찾고 있다.

수난 많은 역사를 오직 민족적 주체라는 의지와 활력으로써 지켜온 韩民族이었기에 韩民族에게서 확인되는 政治意識의 중심은 主體意識 바로 그것이었고 이같은 主體意識은 역사적 상황속에서 주로 저항의식의 형태로 발휘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민족의 역사의식의 형태를 통하여 부단히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蔡革思想과 事大秩序만 하여도 韩民族고유의 思想類型이 아니고 朝鮮王朝가 朱子學을 國教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반으로 新王朝의 秩序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조선사회에 식물 뿐인 의식형태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對明事大的 禮를 갖추는 形式上의 제약성 밑에서도 자립성을 선양하고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러 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例전대 世宗은 先代의 어느 君主보다도 “우리 동방(朝鮮)은 君臣이 專心하여 事大의 至誠을 다해야 한다²⁴⁾는 至誠事大를 명분상의 지침으로 강조하면서도 동북지방에 六鎮四郡을 설치하여 국경선을 확립함으로써 近世的 主權概念을 정립하였으며 世宗 11年 7月에는 國家典儀式을 바로잡아 주체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平壤의 箕子廟 남쪽에 檀君祠堂을 마련하여 檀君을 우리 東方朝鮮의 始祖임을 밝히

24) 世宗實錄 第三十二卷 世宗 8年 9月 戊午條十九 “上曰…事大當以誠…然以大義言之 民間有弊 其事急 事大不誠其事重…外國藩王固無謂之義”

고²⁵⁾ 또한 事大主義儒臣들의 반발을 물리치고 한글 28字의 訓民正音을 創製頒布하는 등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주체성을 선양하는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金宗瑞 등은 세종 19년에 北伐論을 전의하여 묘당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었다.²⁶⁾

한편 朋黨政治의 派閥性은 본래 學緣으로 맺어지는 성리학체계에서의 봉당이 각각 방의 書院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中央에 진출한 自己派의 官僚 또는 士林을 통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본자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朋黨政治의 理念도 後期에 와서는 어떤 이념이나 정책의 대립이 아닌 血族黨派間의 過熱된 權力鬭爭과 閣閣中心, 一黨專制化 추세로 변질되어 파경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혈족적 파벌간의 침혹한 정권투쟁도 소위 몇몇 권세를 자랑하는 名門閥閻間의 相爭에 불과하였던 것이고 일반민중까지도 그에 휩쓸려 支離分裂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민중은 정권쟁취나 유지를 위해서는 의해 외세의존도 불사하였던 지배층과는 달리 그리고 당파싸움에서 반대파를 사형 혹은 유배시키도록 王에게 갖은 中傷謀略을 茶飯事로 생각했던 지배층들과도 달리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大同궐기하여 民族的 主體性과 일체의식을 견지하여 國難을 극복해 온 전통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다.

Ⅲ. 韓末開化期의 韓國政治文化의 近代化過程

1. 韓國에 있어서 政治文化近代化의 萌芽

우리 나라에서近代的 思想이 짹트고 대두한 것은 英·正祖時代의 實學運動에서 비롯되었다. 實學派學者들 중에서도 특히 西歐의近代思想과 科學技術을 적극 도입하여 利用厚生함으로써 富國強兵과 國利民福을 도모할 것을 주장한 北學派實學者들은近代的 宇宙觀, 人間觀, 學問觀, 職業觀을 고취하고近代化政治·經濟思想을 계몽하여 後期開化運動의 理念의 源源이 되었으며, 이밖에重農主義의 制度改革을 통한 經世致用을 주장한 百科辭典派 實學者들과 또한 國學의 自主·歷史意識을 기반으로近代精神을 고취한 國學派實學者 등과近代的思想가에 크게 寄與하였다. 北學派에 속하는 天文學者 洪大容(1731~1783)은 地動說에 준거해서 華夷의 世界觀을 타파하고近代的 民族主義思想과 인간평등 사상을 고취하였으며 茶山 丁若鏞(1762~1836)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聰慧적인

25) 「世宗實錄」, 第29卷 世宗 7年 9月 辛酉條二十九 및 第154卷 地理志平安道平壤條 등 참조.

26) 「世宗實錄」, 第七十七卷 世宗 19年 5月 壬寅條 乙巳條 및 同 7月 己丑條 등 참조.

주 분제와 노비제의 폐지를 주창하였다. 이들 실학파들의 社會改編思想은 韓末의 一連의 개화사상으로 계속이 되며 전통적인 人本的 평등과 近代的 民族主義 사상은 東學思想으로 승계되었다. 즉 실학운동의 近代的 사상과 革新開放 이념은 개국 후 초기 근대화엘리트들의 開化進步意識으로 昇華되어 甲申政變, 東道器運動, 甲午更張, 獨立新聞 및 독립협회운동 등 일련의 위로부터 일어난 開化運動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억조창생 회귀일체”(回歸一體) 또는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또는 “人과 天은 하나다”(人乃天)라는 주장 등에 나타나 있는 反封建 인간평등사상은 농민들의 진보의식으로 자각되어 밑으로부터 일어난 東學農民運動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韓國史의近代化發展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이같은 진보의식은 민족적 주체성과 자주의식이 중심이 되어 신장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民族內主體性과 自主性 위에서 진보가 성취되었고 민족사의 진보는 그대로 우리 한민족 정치의식의 특색을 민족적 주체성이란 가치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E 自主意識과 進步意識은 어디까지나 相補的인 조화관계를 가지는 것이 韓國發展의 특색이요 우리의 역사의식의 본질이라고도 하겠다. 趙光祖의 憂國思想 곁에서는 열렬한 維新論이 따르고 있었고 李珥의 國是論 옆에서는 강경한 革舊更新論이 따르고 있었다. 즉 “革舊更新이란 그 是非利害를 따질 때 그 중요한 것은 백성에게 實用的이고 편리하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貪官污吏나 잘사는 幸民 모두가 좋다고 하기를 기다려서 고치려 한다면 宿弊를 끝내 고칠 날이 없을 것이다.”²⁷⁾라는 李珥의 革新主義는 바로 저 10萬養兵說과 같은 그의 國家的 自主意識의 기반 위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다.

둘·론,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는 韓末의 衛正斥邪思想(주로 自主意識等)이나 開化意識(주로 進步意識 등)과 같이 自主의 측면과 進步의 측면이 의식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그같은 모습은 1894년 甲午改革을 통하여는 자주의식과 진보의식이 동일한 역사 앞에서 서로 갈등하는 모순으로까지 잠시 심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사 앞에 동시에 밀어닥친 과중한 自主(外勢에 抵抗)와 進步(近代化로의 改革)에의 임무를 각각 분담하여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의식의 일시적인 존재형태에 불과하였다.

그기기에 당시 자주의식 측면의 의식의 가장 큰 출기였던 義兵運動에서도 萬國

27) 「栗谷全書」, 卷9書 “答成活原”.

公法 케 호소하고 世界大勢에 순응하려는 개방적인 진보의 측면이 나타났고 진보적인 측면의 의식의 가장 큰 봉우리였던 獨立協會의 思想에서는 아예 民族的 自主를 내세운 民族思想과 “國家的” 自強意識이 강조되고 일련의 근대 政治思想 が 소개되었다.²⁸⁾

‘독립신문’과 獨立協會運動을 통한 政治思想의 啓蒙은 첫째로 民族主義思想 으로써 이를 위하여 開化先驅者 徐載弼등은 獨立門전립, 獨立館전립, 獨立公關 조성 등을 비롯하여 獨立協會를 결성하고 한글전용과 가로쓰기 運動 등을 전개 하였으며, 둘째로 民主主義思想 계몽을 위하여 1) 近代的 國家論定立을 위하여 華夷의 世界觀에 입각한 專制君主制를 脱皮하고 立憲君主制, 代議君主制를 現實的 改革方案으로 提案하고 中樞院을 近代的 民選議會으로 改革하여 議會民主主義를 制度화할 것을 제창하여 구현하였으며 또한 官吏는 主權者的 公僕이라는信念 아래에서 地方官의 民選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⁹⁾ 그리고 天賦人權說과 社會契約說 및 君主의 命令系統과 內閣의 命令系統을 밝히고 여기서 특히 近代의 立憲君主制의 內閣中心體制로 改革하여 君主는 王室關係宮內部 업무에만 주로 치중하고 內閣의 政務에는 關與하지 못하게 그 權限을 制限하는 동시에 君主와 國家를 구분하고 近代的 法治國家體制確立을 제창하였다.³⁰⁾ 다음 2) 政治論定立을 위하여 民主的 政府와 近代政黨論을 소개하고³¹⁾ 3) 法治論으로써 法治의 本義, 法治不在의 결과, 罪刑法定主義, 法 앞에서의 平等, 法治不在에 대한 責任 문제등을 논하였다.³²⁾

그리고 國際關係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 國際情勢觀 2) 國際次元의 경쟁 3) 부르주아국제경쟁, 勢力均衡論 등을 논하고³³⁾ 나아가서 부르주아 自強獨立論³⁴⁾과 主權論에서 1) 대한이 자주 독립국인 이유와 2) 주권의식의 흥기에 관하여 논하였다.³⁵⁾

이와같이 ‘독립신문’과 獨立協會運動은 民族主義, 思想法治主義, 民主主義,

28) 金雲泰, 「서재필의 정치사상」, 『서재필 대우학술총서』, 民音社, 1993, pp. 68-113 참고.

29)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서울: 博英社), 1981, pp. 274, 278-280.

30) 〈獨立新聞〉 1897년 11월 16일, 동 4월 17일, 10월 29일, 5월 8일, 9월 27일, 5월 29일 字論說 및 雜報 참고.

31) 〈獨立新聞〉 1897년 4월 17일, 1896년 9월 1일, 동 8월 27일, 4월 14일, 1897년 1월 16일 字論說.

32) 〈獨立新聞〉 1897년 3월 18일, 동 6월 10일, 3월 18일, 1월 5일, 1896년 1월 28일, 동 8월 25일, 7월 14일, 7월 11일, 12월 11일, 2월 18일자 論說.

33) 〈獨立新聞〉 1898년 12월 22일, 1899년 2월 13일, 동 3월 18일 1896년 8월 13일, 1897년 8월 27일, 동 7월 27일, 9월 18일, 5월 25일, 8월 10일자 論說.

34) 〈獨立新聞〉 1896년 12월 19일, 동 10월 10일자 論說.

35) 〈獨立新聞〉 1897년 10월 26일, 동 3월 4일, 10월 9일, 11월 18일자 論說.

八權, 公職倫理, 市民意識, 主體的 歷史意識, 國際政治 등 분야에 걸쳐 당대 지도자와 국민의 미풍을 계발하고 근대 정치사상의 씨를 심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개항 이후 근대사가 斥邪(意識)과 開化(意識)라는 두 줄기로 진행되던 중에서도 斥邪 쪽에서는 “道는 나의 道를 지키며 器는 西洋의 器를 배우자”는 소위 ‘東道西器’,³⁶⁾와 같은 진보의 축면이 보였고, 한편 開化의 쪽에서는 먼저 自主의 劢를 공고히 한 다음에야 開化의 實을 거둘 수 있고 우선 主權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維新의 效를 기울 수 있다는 소위 穩健開化論³⁷⁾의 自主意識이 보이고 있었다.

이것을 종합할 때 우리는近代化過程에서 開港(1876)을 계기로 하여 정치의식의 자주적 축면(斥邪)과 進步的 축면(開化)이 서로 분리되던 제약에서 그만一代 뒤에서(1905) 主權을 잃고야 마는 미국을 당하였으며 다시 그같은 양 축면이 강렬하게 힘입 하던 3·1民族運動에서 가장 활발한近代史의活力을 얻었던 것이다.

IV. 日帝植民統治下의 政治文化의 歪曲

日本帝國主義의 韓國植民支配는 世界植民史上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전제적이고 준엄한 것이었다. 그것은 軍事的 侵略에 마땅을 둔 政治的 支配體制의 형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經濟的 侵透를 목적으로 文化的 侵蝕이 유기적으로 병행되면서 자행된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韓國侵略은 여러가지 국면에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文化的 精神의 분야의 侵奪過程에 주목하노.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韓國傳統政治文化가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해방후 政治行政發展에 어떠한 후유증과 역기능 작용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⁸⁾

1. 民族性의 마비와 民族分裂의 助長

日本의 植民統治의 기본방침은 그들이 표방한 소위 ‘同化政策’으로서 그것은

36) 그것은 衛正斥邪의 민족적 자주와 開化라는 역사적 진보가 하나의 民族主體意識으로 합일하였던 1880년대 한국정치의식의 한 특색이 있다. 이때 器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진 形型의 범위는 技術機械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정치・社會制度와 같은 제도적 축면까지 확대되어 갔다(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 全訂新版(서울: 一潮閣), 1984, pp. 64-99, “開港을前提로 한 政治文化의動搖” 참조).

37) 穩健開化派인 申箕善의 上疏(「日省錄」, 高宗 31년 음 10월 3일 條).

38)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서울: 博英社), 1986, pp. 65-66, 319-320, 506-514 등 참고.

한민족의 主體意識을 빼앗고 日本人으로 同化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韓民族抹殺政策이었다. 日本人은 文化的 劣等感에서 온 自己分裂的인 對韓 心像을 노정하여 民族文化를 무시, 과피하는 非知性的인 ‘論理의 遊戲’를 놓으면서 歪曲된 植民史觀을 扶植하고 그들의 한국지배를 합리화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上古寺代의 韩民族의 神話, 傳統을 왜곡하여 소위 ‘日韓同祖論’ ‘神功皇后의 新羅征伐’ ‘任那日本府’의 韓國支配論 등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同化政策’과 韓國直民支配를 합리화시키는 植民史觀을 조작하는데 급급하였으며 또한 上古時代以來의 漢四郡을 비롯하여 中國과의 事大慕華의 附庸關係를 들어 文化思想面에서 독자성과 자치능력이 없는 민족으로 경멸하면서 韩國史發展에 있어서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한편 韩國人이 黨爭만 일삼고 民族的 團結心이 없고 日帝植民支配現實에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선전을 內外에 전개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論理의 遊戲는 韩民族의 傳統文化의 정수를 고의로 왜곡하는 論旨로써 이로 말미암아 日帝時代의 韩國人에게는 民族的 自虛心과 褴襠적 기질이 배양되어 近代民族으로서의 主體性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한국亡國의 ‘韓日合併’에서 3·1운동에 이르는 日帝武斷統治期에는 韩民族은 결합하여 日帝侵略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日帝의 犬交한 懷柔・分裂政策으로 국내외의 民族운동이 분열을 면치 못하였다. 이는 日帝가 남겨놓은 유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民族史에 있어 깊은 상처로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민중과 지도자간의 相互不信, 민중내부의 相互不信과 배반 및 종오십의 씨는 日帝의 民族分裂政策이 심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인을 思想犯專擔高等係刑事의 앞장이로 대거 기용해서 독립운동가를 적발시키고 民族指導層의 内部分裂을 조장하고 民族主義者를 매수 또는 회유공작으로 親日傾向의 妥協主義者로 전향시킴으로써 指導層에 대한 民族의 不信과 회유 또는 반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각계의 親日派, 隸屬資本家를 비롯해서 각종의 親日團體를 동원해서 民族意識을 말살시키고 民衆의 自主意識을 마비시키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³⁹⁾

이도 같은 日帝植民治下에서 韩國民族主義는 그 自生的 發展이 저지당한채 外部侵咯에 대한 抵抗的 民族主義의 性格을 띠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國內民族主義는 준엄한 강압하에서 内部分裂을 강요당해 非妥協的 民族主義와妥協的民族主義로 분열되고 전자는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쇠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후자는 다시 독립운동을 단념하고 民族을 등지는 親日의 이른바 改良的 民族主

39) 南著, 「日本帝國主義의 韩國統治」, 서울 : 博英社, 1986, pp. 287-320.

으로 전락하기도 한 것이다.

한편 國外의 民族主義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上海臨時政府가 제망명정부·세력을 통합한 유일한 正統的臨時政府로서 法統을 이어오면서 國內外동포의 유일한 民族代表機關으로 獨立運動을 전개해 왔으며 中國, 满洲, 沿海洲 및 美洲 등 각 지역에서 각기 협지여전에 따라 다양적인 民族運動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1920年代에 韓國의 社會·共產主義勢力은 獨立運動에 가담하면서 日帝의 가혹한 탄압하에서 前衛組織을 광범한 民族的 기반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戰術上 요청에서도 民族協同戰線을 꾸으며 그 일환으로 國내에서 新幹會, 檢友會 그리고 海外에서 單一黨運動이 展開된 바 있으나 이 운동 과정에서도 日帝의 民族分裂政策이 작용해서 民族陣營의 分裂 뿐만 아니라 社會·共產主義陣營의 分裂도 助長하였다.

이와 같은 一連의 日帝의 民族抹殺과 韓民族懷柔分裂政策으로 因하여 親日勢力이 만연되고 左右翼의 對立과 民族陣營의 分裂이 擴大되어 결국 韓國民의 民族生은 마비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解放후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混亂한 政局에서 民族의 分裂을 深化시킨 根本의 内因으로 作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形式主義와 法規萬能主義

日帝植民統治가 남긴 또 하나의 因習으로서 形式的 法規萬能主義의 遺產이 주목된다. 본래 日本의 實定法體系는 明治維新 이래로 歐美諸國 특히 獨逸法 또는 프러시아法을 계승한 것이었다. 마침 韓末開化運動에 日本 侵略勢力이 개입하고 특히 1894년의 甲午改革이 日本의 內政干涉으로 타율적으로 강요된 관계로 日本의 大陸法의 實定法體系가 우리나라의 政治, 行政, 司法, 社會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단 채택되었다. 물론 그후 1897년의 一連의 復古的 光武改革으로 甲午改革에서 채택된 日本式의 法令에 대한 部分的 改廢가 단행되기는 하였으나 露日戰爭 이후 日本勢力이 韓半島를 석권하여 統監府를 설치하고 뒤에 '併合'으로 朝鮮總督府가 설치됨에 따라 日帝의 完全植民統治하에서 韓國의 모든 實定法體系는 日本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日帝植民支配下의 日本式 實定法體系는 물론 韓國人에게는 植民的 壓制의 道具로써 강요된 것으로 社會規範으로부터 유리되고 하등의 正統性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植民支配體制下의 制定實定法인 만큼 그 適用執行이 강요된 만큼 惡法도 形式上法인 이상 언제나 行政에 대한 指針으로서 그 絶對的 優位性을 갖춘 것으로 통용되었다. 이리하여 法規萬能主義라는 行政官僚制

의 特殊한 행동양식을 가져 왔다. 그리고 形式法의 解釋과 운영에는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法科出身者가 行政官僚制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形式上 法規를 萬能의 指標로 삼고 있는 植民主義因習은 韓國의 전통적 尊民本, 爲民主義 政治文化를 왜곡한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폐단을 남겨놓았다. 첫째로 行政의 唯一한 目標를 合法性 또는 適法性에 두었기 때문에 그 行政은 日帝의 植民地支配體制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나아가서支配秩序를 탄당한 것으로 유지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나 韓國民族의 利益과는 상반되는 反民衆的이고 非民主的이며 결국 合目的性이 결여된 行政에 그친 것이었다. 이와 같이 行行政의 基本目標를 合目的性 보다도 合法性 또는 適法性에 두는 폐습은 하방후 韓國官僚文化에 계승되어 政治·行政過程에 逆機能을 조장한 것이다.

둘째로 儀式主義의 폐단을 남겼다. 본래 전통적으로 儒教文化圈에 속한 韩國社會에서 禮는 倫理의 行爲指標로서 禮中心의 儀式主義를 社會生活뿐만 아니라 官僚組織生活에서 중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전통적 문화적 기반 위에다 日帝植民治下에서 부식된 法規萬能主義官僚文化의 因習은 가일층 儀式主義의 폐습을 심화시켰으며 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폐해를 남겼다. 즉 行行政에 있어 法規執行上의 法節次를 우선하였기 때문에 行行政官僚의 思考의 硬直性과 非融通性과 劃一化 경향을 조장하고 變化와 革新에 둔감 또는 저항하는 保守性:↑ 守舊性을 가중시켰으며 行行政의 形式主義와 無事安逸主義를 낳았고 이것은 디시 行行政의 강력한 統制性을 불러 일으킨 것이며 나아가서 官僚의 性格을 本心:↑ 外心으로 나누개 하여 二重人格構造의 性格을 띠게 한 것이다.

3. 權威主義的 特權意識

韓國人의 日帝植民支配에 대한 不信, 否定心理와 日帝軍國主義 官僚組織內에서 조장된 二重人格構造의 性格과 面從腹背心理로 말미암아 이에 통제를 강화하려는 악순환에서 기인된 權威主義의 官僚風土를 우선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밖에도 日帝植民治下에서 形式的 法規萬能主義, 特別權力關係理論⁴⁰⁾ 또는 官尊民卑思想 등이 한국의 총독부 정부나 민간사회에 權威主義를 부식하고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며 나아가서 絶對主義의 天皇制와 파시즘체제, 軍國主義의

40) 日本의 公法學에서는 公共行政關係를 私法關係와 상이한 特別權力關係로 규정하고 관료들에게 ‘無定量의 忠誠’을 또는 上官에 대한 ‘忠實無定量의 勤勞’를 강요함으로써 한국관료계의 特權性과 權威主義의 服從狀況을 부식시켰다(上揭書, 拙著,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pp. 511-512).

主體主義政治體制 그리고 한국멸시, 일본우월의 帝國主義的 心情 등 여러형태의 침략적 帝國主義 이데올로기 등이 또한 植民治下에서 權威主義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公共行政關係가 마치 特權性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위 「公法上의 特別權力關係」니 혹은 上級者에 대한 '誠實服務의 義務'를 빙자해서 反對給付 없는 依役을 강요하거나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경우에는 行政法上의 禁反言(estoppel)의 法理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行政慣例가 日本統治下에서 배양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풍토에서 官尊民卑意識과 官職私有觀 또는 官廳組織內의 严格的 階級主義的 服務規律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中央集權的 統治體制에 日帝植民統治下의 軍國主義的 專制的官廳理論이 원용됨으로써 더욱 統治, 行政體制의 單極的이고 一元的인 集權化를 촉진시킨 것이다. 즉 모든 行政權이 1人の 最上級者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이외 모든 隸下의 官僚들은 소위 補助者로서 權限이 없음으로 모든 命令이 頂上으로부터 밑으로 향하여 발포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單極的 階層制官廳理論은 日本의 天皇制 파시즘體制를 합리화시키는 組織理論으로서 크게 기여한 것이며 특히 朝鮮總督府統治機構는 軍國主義的 專制體制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解放후 우리나라 行政에 많은 폐습을 남기었다. 그 폐습중에 上級者의 卽興的專制, 上級者에게 모든 責任轉嫁傾向, 過剩忠誠傾向, 面從腹背, 上級者の 過剩團束 등은 해방후 전승된 日帝植民統治의 遺習으로 주목이 된다.

4. 不信・否定心理의 造成

日帝의 植民政策에 대항하여 國内外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抗日民族運動을 탄압하기 위하여 日本支配層은 준엄한 軍事파시스트 直接統治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韓國人은 日帝의 支配體制와 그 法規・命令 또는 指示 등을 全面적으로 否定하는 不信하며 항거하는 것을 民族的으로 당연한 愛國愛族의 道理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韓國人의 不信抗拒에 대하여 日帝는 植民支配體制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親日勢力を 總督府統治와 末端行政 그리고 社會 文化 등 各領域에 침투시키고 지배기반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韓民族에게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單一民族共同社會의 親和的 紐帶가 크게 봉괴되었을 뿐더러 韓國人간에서도 상호불신하는 부정적 풍토가 어느듯 社會에 뿌리를 박게 된 것이다. 그리고 韓國人은 總督統治를 不信하고 否定하는 나머지 政治的 無關心과 無氣力한 宿命觀에 사

로 잡히기에 이른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 官僚組織內에 있어서도 高位權力職位의 日本人과 行政司法의 末端職位의 韓國人 사회에 잠재하는 不信意識이 점차 침화되어 上下職位間의 面從腹背心理와 부하에 대한 統制監督의 強化傾向이 相乘하고 서로 악순환되는 官僚病리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因習은 韓國人 政治意識의 反政府性向과 黑白論理的 思考를 부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暴力主義

日殖民의 기만적 植民政策과 가혹한 탄압정치는 國內外에서 치열한 민족항거와 民族獨立運動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본래 平和愛護의 韩國人에게 政治鬭爭 方式으로서 暴力志向의 최후의 方法을 택하게 하였다. 植民初期의 義兵運動을 비롯하여 3·1運動 이후 獨立外交나 實力培養方法의 限界와 이에 대한 不信等 품계 된 나머지 暴力手段만이 효과적鬪爭方法으로 믿기에 이르렀고 義士, 烈士들의 義舉鬪爭, 대리活動, 組織的인 武力抗爭 등이 國內外 파급되었다. 이리して 極限的鬪爭方法은 解放 이후의 政局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殖民統治는 한국의 정치문화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으며 解放後 韓國 政治·行政發展에 큰 沮害要因이 되었다.